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작 품 소 개 서

구 분	내 용
이야기 소재 (Motive)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 거대 가문 간의 반목과 음모, 두 청춘남녀의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비극. 이 아름다운 고전을 비틀어 보면 어떨까? 통통하고 여자에게 관심 없는 로미오, 욕심 사납고 시기심 많은 내숭100단 줄리엣, 3대째 반목을 거듭해온 재래시장 안의 떡집과 빵집. 원전과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 200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치는 좌충우돌 학원 코믹 멜로.
스토리 구성 (Plot)	독립문 영천시장의 '영천 떡 상회'와 '불란서제과'. 3대째 대립과 갈등으로 반목해온 두 집안에서 동갑내기로 태어난 노민호와 소단비. 볼꼴 못볼꼴 모두 보아온 이 둘은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사이다. 어여쁜 외모와 영특한 머리로 세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단비.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뻔뻔하고 사악한 데빌 줄리엣이다. 도미 유학을 꿈꾸며 오디션, 수업 도강, 노래자랑 출연까지 돈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달려들지만 소득은 없고 그녀의 파렴치한 정체만 노출될 뿐. 이런 상황에 결정타를 날리는 이가 있으니 그녀는 바로 완벽한 미모에 천사같은 성품을 가진 주리. 이름마저 줄리엣과 비슷한 그녀가 전학 오고난 후, 그녀는 단비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영천고 가을축제의 대막을 장식하게 될 원어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역 마저 따내고 마는 주리. 이에 작동하는 데빌 단비의 시기심 때문에 주리와 시장 친구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껏 단비를 봐주던 민호마저도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게 된다. 하나 둘, 자신에게 소중했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단비. 그녀는 주리의 부탁으로 이제껏 소홀했던 연극연습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독특하게 각색된 연극은 결국 성황리에 막을 내린다. 여전히 파렴치한 단비지만, 이제 그녀는 진정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된다.
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단비(18)** 빵집 딸. 업그레이드된 2009년 판 엽기녀. 파렴치함. **노민호(18)** 떡집 아들. 단비 뒤치다꺼리로 바쁨. 근면하고 성실함. **유주리(18)** 주리마트 외동딸. 말이 필요 없는 진짜 줄리엣. **한여일(18)** 단비의 단짝친구 겸 하녀. 온갖 푼수 짓을 일삼음. **왕미희(39)** 단비모. 빵집 주인. 빼어난 미모로 뭇 남성들을 설레게 함. **왕상진(37)** 단비의 외삼촌. 제빵사. 과거 시장을 주름잡던 양아치. **노성군(43)** 민호부. 떡집 주인. 과거 미희를 흠모했음. **박춘자(40)** 민호모. 떡집 안주인. 디즈니만화 주인공 포카혼타스를 닮음. **노영호(7)** 민호의 늦둥이 남동생. 영어 영재. **마규식(18)** 시장 중화요리집 아들. 영천 4총사 중 한 명. **토니 언더스탠드(33)** 동네 단과학원 원어민 영어강사. 남아공 출신. **최병기(28)** 시장 비디오가게 알바생. 욕구불만형 방화범. **기타 등등**.

JULIET IS TOO FARYUMCHI(파렴치)

한없이 파렴치한 줄리엣

조국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6·25 민족동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전화를 피해 사람들은 남으로, 남으로 몰려들었고 독립문 밖 무악재에는 피난민들이 집성촌을 이루게 된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너나없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이것이 곧, 독립문 영천시장의 전신이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설계하는 상인들과 그들의 활기로 가득한 영천시장. 일찍부터 서구 문물의 도입에 관심이 많았던 개성출신의 피난민 왕씨는 "이제 서구식 식생활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가족들을 데리고 시장 한 귀퉁이에 빵집을 차린다. 이때, 도끼눈을 뜨고 빵집의 개점식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맞은편 한과상회의 노씨 가족들이었다. 독립문 토박이를 자처하며 민족 고유의 음식, 떡의 생산과 판매에 긍지를 갖고 있던 그들은 왕씨네의 빵을 "상스런 양놈의 음식" 이라며 멸시했고, 이때부터 두 집안 간의 피할 수 없는 대립은 시작된다. 온갖 술수와 협잡을 일삼으며 삼 대째 영욕의 세월을 보내온 두 집안. 그러나 70년대 오일쇼크와 88년 서울 올림픽, 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겪으며 빵과 떡은 제1 부식으로서의 위상을 잃었고 결국 두 가게는 영세한 小 상점에 머무르고 만다.

그리고 1992년 여름, 경쟁하듯 이들 집안에 두 아이가 태어난다. 반목과 갈등, 시기와 질투 속에 나고 자란 빵집 단비와 떡집 민호. 이들이 한국근대사와는 관계가 별로 없는 2008년 현재,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이다.

유구한 전통의 영천 고등학교에서 언제나 인기투표 1위를 차지하는 '불란서제과' 집 딸 **소단비(18)**. 성적우수, 외모출중, 성격까지 명랑쾌활해 모든 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녀는 영천의 줄리엣이다. 그리고 지금, 단비의 꽁무니를 쫓아 교문을 나서는 더벅머리 남학생, 땅딸막한 키에 후줄근한 외모, '영천 떡 상회' 큰 아들 **노민호(18)**. 발음이 비슷하다고 로미오로 착각하진 말자.

길모퉁이를 돌아서는 단비. 사람들의 시선이 뜸해지자, 들고 있던 가방을 툭 떨어뜨린다. "야, 가방 들고 쫓아 와." 헐레벌떡 달려와 가방을 집어 드는 노민호. "아, 저게! 씨." 그렇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한다면 큰 오산. 사람의 탈을 쓴 여우 소단비와 그녀에게 매일 같이 당하기만 하는 우유부단 노민호.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둘 사이에 지고지순한 사랑이 끼어들 틈은 없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영천 시장. 민호에게 가방을 뺏어들고 가게에 들어서는 단비. 태연히 담배를 꼬나물고 홍두깨를 밀고 있는 단비의 외삼촌, 시장을 주름잡던 양아치 제빵사 **왕상진(37)**. "왔냐?" "소보루에 재 떨어져, 삼촌." 담배를 뺏어들고 방으로 직행하는 단비. 방문을 열면, 거울 앞에 앉아 한참 노래 연습중인 단비 엄마 **왕미희(39)**. 단비를 똑 닮은, 한 미모 하는 얼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전국 노래자랑 출현에 한껏 들떠있다. 거울 속에 비친 단비를 향해 찡긋 윙크하는 미희. 한숨 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단비. 책상에 앉자마자 교과서 꺼내 공부하기 시작한다. 계속되는 미희의 노랫소리에 헤드폰으로 귀를 틀어막는 단비.

맞은편 '영천 떡 상회'에까지 들려오는 미희의 노랫소리. 거기에 맞춰 흥겹게 떡 빚고 있는 남자, 민호와 판박이 같은 민호 아빠 **노성군(43)**이다. 뒤쪽에서 방아기계 돌리며 가래떡 뽑는 굵은 팔뚝의 민호 엄마, **박춘자(40)**. "신나셨구만. 애비나 아들이나." 때맞춰 가게에 들어서는 민호. "난 빼줘." 시큰둥하게 방으로 걸어간다. 가구들로 비좁은 방 안. 둥글둥글한 얼굴의 민호 동생, 늦둥이 **노영호(7)**. 보고 있던 디즈니 만화 '미녀와 야수'를 정지시킨다. "(영호)welcome, Minho. why did you so late?" "아임쏘리땡큐." 어깨 으쓱하고 다시 비디오 재생 버튼 누르는 영어영재 영호.

외모와 성격, 가정환경까지 모두 정반대인 두 집안. 구수한 외모와 성실한 성격으로 시장 내에서도 인망이 두터운 떡집 노 씨네. 두 팩에 삼천 원 메뉴를 개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아버지 성군을 닮아 바지런한 민호. 공부엔 별 흥미가 없지만, 새벽엔 야채배달을 하고 방과 후엔 가게 일을 돕는 성실 청소년이다.

그에 반해, 성격 나쁘고 콧대 높기로 유명한 빵집 왕 씨네. 선대의 유지는 어디다 내팽개쳤는지, 빵맛보다는 여자들 미모로 가업을 지탱해 오다 근래 곳곳에 생겨난 유명 제과 체인에 밀려 현재는 재료값 대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자란 단비. 그렇다. 모두가 속고 있는 천사 줄리엣의 모습은 그녀의 본래 성격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톱클래스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안 하는 척 매일 밤 코피 쏟아가며 공부해, S라인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조깅해, 등교 전 거울 보며 '착한단비' 연습은 기본, 가지고 싶은 것은 악마의 꾀를 내어서라도 반드시 갖고야 마는 데빌 단비, 이것이 그녀의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치사하고 뻔뻔한 단비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유치원 시절부터 티격태격만 십 수 년 경력의 민호뿐이다.

파렴치한 단비. 그녀의 꿈은 파티시에. 구질구질한 '불란서제과'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도미 유학만이 살길이라고 결론 내린 단비. 그러나 가게보다 자신의 치장에 더 관심 많은 푼수 엄마에게서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것은 불 보듯 훤한 일. 단비는 걱정이 태산 같다.

한편, 영천시장 사람들은 최근 시장 주변에 발생한 방화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떠

들썩하다. 벌써 4건의 방화가 저질러졌고 그 중 한 건은 시장 안의 헌책방에서 일어났지만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 시장 사람들은 순번을 정해 매일 밤, 순찰을 돌기로 한다.

비밀리에 유학을 준비 중인 단비는 자금 마련을 위해 전전긍긍한다. 이미지 관리하랴, 성적 유지하랴, 알바는 죽어도 하기 싫은 단비.

그녀의 단짝친구(겸 하녀) **한여일(18)**. 벌써 2년 째 챙겨 온, 단비의 도시락을 꺼내들며 아이디어를 짜낸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있잖아…." "빨리 말해. 속 터지니까." "넌… 이쁘니까… 탤런트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내키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단비는 모 영화사의 신인배우 오디션을 본다. 그리고 얼떨결에 주인공에 낙점되는 단비.

갑작스레 찾아 온 행운에 들뜬 단비. 미팅 날 오후, 단비는 여일을 대동하고 강남의 어느 카페로 간다. 깔끔한 인상의 영화사 기획부장은 단비에게 억대의 개런티를 제시한다. 다만, 프로필 사진촬영이며 의상구입비 등 착수금조로 본인이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기획부장. 단비는 어딘가 꺼림칙해하다고 느끼지만, 매니저라도 된 듯 단비를 부추기던 여일, 그가 내민 서류에 얼른 지장을 찍는다. "아, 제가 명함을 안 드렸죠." 명함을 받아드는 단비. 그때, 기획부장에게 걸려오는 전화. 핸드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가 자못 거칠다. 지나치게 공손히 전화 받는 기획부장. 명함에는 금박으로 '대박 영화사'라 찍혀있다.

두 달 치 용돈과 학원비, 여일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100만원을 입금하는 단비.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라고는 없는 영화사. 전화까지 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던 단비는 2학기 중간고사에서 1등을 놓친다.

며칠 뒤 경찰서. 30명이 넘는 여고생들이 울고 불며 차례차례 조서를 작성하고 있다. 유령 영화사에 속은 배우 지망생들. 그 틈에 처량하게 앉은 단비, 여일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부득부득 이를 간다.

학원비를 몽땅 날린 단비. 미국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토플준비반을 수강하려던 그녀의 계획이 실패할 위기에 처한다. 미희와 상진에겐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알부자 민호를 찾는 단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알바전선에 뛰어든 민호는 상당한 돈을 저축하고 있었다. 일체의 사실을 숨긴 채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는 단비. 이유를 모르고서는 못 빌려주겠다며 버티는 민호. "돈이 필요하면 너도 노래자랑에 나가든가." "그 얘기 꺼내지도 마! 가뜩이나 엄마 땜에 쪽팔려 죽겠는데."

유학을 포기할 수 없는 단비, 최후의 수단으로 학원 수업을 도강하기로 한다. 두꺼운 뿔테안경, 촌스러운 헤어스타일로 평소와 다른 모습을 연출한 단비, 몰래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철저한 예습과 복습으로 학원생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게 되는 단비. 정체를 숨겨야하는 단비의 사정도 모르고 똑똑한 그녀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퍼붓는 외국인 강사, **토니 언더스탠드(33)**.

토요일 오후. 시장 뒷골목에 위치한 마규식네 집 옥상.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한 옥탑방 안, 민호와 친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만화책을 보고 있다. 씨름선수 같이 맷집 좋아 보이는 중국집 아들 **규식(18)**, 야한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 닭집 아들 **정철(18)**. 민호와 이 둘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붙어 다니는 영천 시장 삼총사. 주말이면 어김없이 옥탑방을 점거한다.

이때, 문을 열고 들어서는 헐렁한 추리닝차림의 비실이 **효성(18)**.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삼총사 무리에 영입된, 유일한 아파트 거주자. "야, 봤냐? 봤냐?" 효성, 들고 있던 휴지를 흔들며 시장 입구에서 받은 휴지에 대해 설명한다. 얼마 전 문을 닫은 시장 안 중소마트의 주인이 바뀌어, 개점을 앞두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피- 들어와 봤자 또 망할 걸. 시장 텃세가 얼마나 심한데." 관심 없는 삼총사. 효성, 휴지의 향기를 맡으며 "근데, 이거 나눠주던 애. 천사 같더라…. 단비는 저리 가라던데." 발끈하는 규식과 정철. "에이, 설마." "우리 줄리엣을 누구한테 감히. 그치 로미오?" 여전히 관심 없는 민호. "(중얼) 맨발의 줄리엣이라…."

늦은 밤 영천시장. 보름달이 둥글게 떠있다. 시장 바닥을 맨발로 걷는 잠옷차림의 단비. 양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채 좌우로 뒤뚱거리며 걷고 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민호가 나타나 잠에 취한 단비를 질질 끌고 간다. "주기가 짧아졌는데. 요즘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그렇다. 영천의 줄리엣 단비에게는 또 한 가지 숨겨야 할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10년 전 부모님이 이혼하고 난 후부터 단비에게 생긴 몽유병이다. 계절이 바뀌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옷차림으로 시장 바닥을 배회하는 단비. 뒤치다꺼리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민호의 차지다. 민호는 귀찮으면서도 이런 단비가 걱정되고 안쓰럽기도 하다.

신창원 뺨치는 변장술과 뛰어난 임기응변으로 학원비를 내지 않고 무사히 한 달을 버틴 단비.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 국·영·수는 물론 사탐과 과탐 수업까지 두루 도강하는 대담함을 보인다. 그러던 어느 저녁, 단비가 있던 강의실에 들이닥친 서무과 직원들. 대대적인 수강증 검사를 실시한다. 단비, 당황하지 않고 미리 마련해둔 개구멍으로 도망간다. 하지만 복도로 빠져나오던 단비는 눈썰미 좋은 베타랑 서무과 직원의 눈에 띄게 되고 대형 단과 학원 안에서 단비와 서무과 직원들의 쫓고 쫓기는 대추격전이 시작된다.

난간을 뛰어넘고 구름다리를 건너, 사탐반에서 과탐반으로 과탐반에서 다시 삼각함수반으로 삼각함수반에서 급기야 예·체능 특별반까지 책상 위를 날던 단비. 시간차 엘리베이터 작전까지 구사하며 옥상에 도착, 비상계단을 이용 탈출을 도모한다. 그리고 지상 1층, 무사탈출의 기쁨을 만끽하며 발을 내딛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190cm(일명 자이언트 토니)의 토니 언더스탠드에게 가로막히는 단비. 뒤돌아보지만 이미 그녀의 퇴로를 차단하고 선 서무과 직원들. 단비는 결국 "My money!"를 외치는 토니 언더스탠드에게 뒷덜미를 잡혀 끌려간다. "Tony can't understand~! Juliet,

you're such a bad girl!"

비참하게 막을 내린 도강사건에 대한 소문은 영천고 내에 삽시간에 퍼지고 만다. 소문의 진상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영천고 학생들. 그 파렴치한 행위의 주인공이 단비일 리 없다는, 남학생 주축의 '단비옹호론'과 지금이야말로 여우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는, 질투로 가득한 여학생 주축의 '단비축출론'이 교실 안 이곳저곳에서 팽팽히 맞선다.

핸드폰에 찍힌 추격전 동영상을 보며 설전을 벌이는 학생들. 그때, 화난 듯 핸드폰을 덮어버리는 손. 민호다.

2학년 복도. 여일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학생들 사이를 걷는 단비.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민호가 단비를 불러 세운다. "영어공부 한다고, 왜 말 안했냐? 내가 좋은 선생님 하나 소개시켜줄까?" "입 단속해. 떡시루. 안 가냐? 한여일(하녀1)." 길게 한숨 쉬는 민호.

한편, 계속되는 경찰의 수사에도 방화범의 꼬리는 잡히지 않고 연일 계속되는 화재사건으로 시장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소문은 소문을 불러 더욱 모호해지는 범인의 정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남자 **병기(28)**. 그는 시장 내, '무림 비디오가게' 알바생이다. 병약한 인상에 도수 높은 안경을 낀, 병기.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며 불법 포르노 테이프 유통일도 겸하고 있는 그는 평소 수상한 거동으로 시장 안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일각의 불안에도 불구, 9월의 영천시장은 곧이어 열릴 전국노래자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있다. 여기저기에서 노래 연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떠들썩한 시장.

화사한 원피스차림으로 밤낮없이 가창 삼매경에 빠진 미희. 노래방 기계 뺨치는 상진의 반주. 노래하는 미희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시장 남정네들 덕에 근래 곤두박질치던 가게 매상도 회복될 기미를 보인다.

잠들기 전, 미리 녹화해둔 노래자랑 테이프를 반복 시청하며 애드리브 하나하나까지 준비하는 미희. 한밤까지 이어진 미희의 노랫소리를 참지 못해 이불 속에서 걸어 나와 엄마의 방으로 돌진하는 단비. 이때, 단비를 막아서는 외삼촌 상진. "야, 니네 엄마 말리지 마. 일등하면 1000cc 차가 한 대다."

다음날, 여일의 집 뒷마당. 맹렬히 춤 연습하는 힙합전사 차림의 단비와 여일.

영업이 끝난 영천 떡 상회. 두 귀에 이어폰을 꽂은 민호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다. 쌀부대를 옮기던 민호 엄마, 힘에 부치는지 민호를 부른다. 몇 번을 불러도 대답 없는 민호. 그러는 사이, 본격화 되는 민호의 댄스. 작렬하는 문워크. 민호 뒤로 다가오는 춘자. 이어폰을 잡아 빼고 뒤통수를 후려갈긴다. "이노무 시키가! 에미 허리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어디서 되지도 않을 딴따라 흉내야!"

마규식네 옥상. 힘겹게 벤치프레스 하고 있는 민호. 그 옆, 쌍안경을 들고 난간에 쭈르르 서있는 규식, 정철, 효성. 시장에 들어 설 중소마트 '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규식 : 야, 주리마트라고 간판 달았더라. 그 애 이름이 주리 아냐? 우리 학교로 전학 오는 건 아니겠지?
효성 : 어따 침을 발라! 주리랑 나는 휴지로 맺어진 인연이야.
정철 : 쯧쯧. 불쌍한 중생들. 휴지는 그런 데 쓰는 물건이 아니거늘. (잠시) 어?! 벗었다! 누나 벗었다!

동시에 악귀처럼 달려드는 규식과 효성. 쌍안경을 사수하기 위해 주먹질도 불사하는 정철. 그 사이, 벤치프레스에 목이 깔려 생사를 넘나드는 민호.

정철 : (절규) 벗었다! 아래도오오오오!

인부들이 주리마트 안으로 물건을 나르고 있다. 진열대와 대형 냉장고 등 가게 오픈을 위한 물품들이 마트 밖에 산적해 있다.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중년의 미남자와 그 옆에 선 '심하게' 예쁜 여학생. 마트 밖에 서서 이를 지켜보는 시장 사람들. "우리 시장도 이제 물갈이 좀 해야지. 새로운 마트에 새로운 주인 좋잖아!" "이놈의 여편네가 정신을 어따 팔고 있어! 저 놈의 마트 때문에 우리 집 매상 떨어지게 생겼는데!" 주리마트를 경계하는 시장 사람들(주로 남자들).
2학년 8반 점심시간. 삼삼오오 도시락 먹는 여학생들. "너희 들었어? 영미 베프 선지. 걔 지난주에 노래자랑 예선 봤대! 근데 그걸 또 떨어졌대!" "아, 쪽팔려! 그런 데 왜 나가, 학교 망신시킬 일 있나."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런데는 할머니들이나 나가는데 아니냐." 깔깔거리는 날라리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숟가락 떨어뜨리는 여일과 눈치 주는 단비. "야, 집어." "(덜덜) 우리 어떡하지… 우린 붙었잖아… 그것도 예선 2등으로…." 영악하게 웃는 단비. "정신 똑바로 차려. 다 생각해둔 방법이 있어." 날라리 하나와 눈 마주치자 단비, 싱긋 미소 짓는다.

전국노래자랑 당일 아침. 들떠있는 시장 사람들. 헤어, 메이크업, 의상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미희. 도저히 30대 후반으론 보이지 않는 외모다. "소단비! 엄마 등 지퍼 좀 올려줘. 어딨니? 단비-!" 대답 없는 단비. 집 안 어디에도 단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누나 5분전이야 5분전!" 하와이 셔츠를 입은 상진. 싱글거리며 선글라스를 고쳐 쓴다. "드디어 영천 마돈나 왕미희 여사 공중파 타는 구나, 타!"
독립문 공원.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모여든 수많은 인파. 떡이며 김밥, 솜사탕과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시장 상인들. 사람들과 흥정하는 춘자와 규식모의 모습도 보인다. 소풍 분위기 만끽하는 사람들. 송해 아저씨의 등장과 함께 울려 퍼지는 익

숙한 시그널 음악. 환호하는 관중들. “참가번호 1번, 영천시장의 스크루지, 백석 기원 최연노 어르신!” 악단의 흥겨운 반주와 함께 시작되는 전국 노래자랑 영천 시장편.

무대 뒤.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는 참가자들.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미희와 머리에 스프레이 뿌리는 상진. 맞은 편 구석 자리에서 춤의 합을 맞춰보는 두 여학생. 철지난 춤들을 조합한 코믹댄스 퍼레이드.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쓴 단비와 여일이다. 상진 신기하단 듯 “저 괴상한 애들은 누구야?” “몰라! 단비 얘는 엄마 안 챙기고 어디 간 거야?” 그때, 미희를 부르는 진행요원. “참가번호 4번 왕미희씨. 다음 차례 준비해주세요.”

무대 위. 음악에 맞춰 블루스 추는 송해와 상진. 주현미의 ‘짝사랑’을 열창하는 미희. 관중석에선 시장남정네들이 ‘고마워요. 불란서제과. 사랑해요♡ 미희씨!’ 플랜카드를 신나게 흔들고 있다. 딩동댕. 미희, 손 흔들며 무대를 내려가면 송해 아저씨 다음 팀을 소개한다. “자, 다음 팀은 이름이 아주 특이하네요. 나와 주세요! 명성황후와 하녀1!” 등장부터 심상치 않은 단비와 여일이다. 비트 있는 음악에 맞춰 작렬하는 코믹댄스. 어울리지 않는 복장에 숨을 헉헉대며 실수를 연발하는 단비와 여일. 어이없어하는 관중들,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관중들의 반응에 탄력 받는 둘. 일단의 남학생들 그런데, 뒤쪽으로 몰려간다. 관중석을 돌며 마트 선전을 위해 물을 나눠주는 주리마트의 그 여학생. 그녀의 친절한 미소에 남학생들 넉 다운 된다. 땡! 그 사이 명성황후와 하녀1은 단비의 탈의(脫衣)에도 불구, 결국 탈락하고 만다.

노래자랑이 거의 끝나갈 무렵, 엄마와 함께 떡 팔던 민호. 헐레벌떡 무대 밑으로 달려간다. 겨우 시간에 맞춘 마지막 참가자, 민호다. 소개가 끝나자, 곧 무대 위로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마이크를 잡은 민호, 호흡을 가다듬고 박효신의 ‘눈의 꽃’을 부른다.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몰래 노래 연습을 해 온 민호. 대견해하는 성군. 눈물 흘리는 춘자. 민호의 애절한 목소리와 신사적인 무대매너에 관중들 환호한다.

결과 발표 시간. 소원대로 2등상을 탄 민호, 제주도 2박3일 여행권을 상품으로 받는다. 미희는 남정네들의 응원에 힘입어 인기상을 타게 된다.

그 시각 무대 뒤. 가면을 벗어 내팽개치는 단비 앞에서 우황청심환 과다복용으로 아직까지 흐느적거리고 있는 여일. 그때, 노래자랑 구경을 왔던 8반 날라리들 중 한 명이 우스운 복장의 단비를 발견한다. “야, 저거 우리 반 소공주 아냐?” “어, 옆에는 하녀1 같은데.” 정신 못 차리는 여일을 챙겨 자리를 피하는 단비. 핸드폰을 들고 둘의 모습을 촬영하는 날라리들.

“너희 무슨 특권의식 있는 거 아냐? 학급위원이면 더 모범을 보여야지. 학교에 분란을 일으키면 되겠냐?” 분위기 싸한 교무실. 담임교사 앞, 단비와 여일이 고개 숙이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온 노래자랑 동영상으로 정체가 탄로 난 단비. 지난 번 도강사건의 주인공 역시 단비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녀의 이미지는 급추락

한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주인공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유주리(18)**. 그 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주리마트의 외동딸. 전학 오고 처음 본 모의고사에서 학년 톱을 차지하며, 그 눈부신 외모와 더불어 남학생들의 우상으로 떠오른다. 성격까지 천사 같은 주리에게 여학생들까지 지지를 보내자, 완벽녀를 가장하던 단비는 급기야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다.

영천고 C·A 시간. 장난치고 수다 떠는 아이들로 소란스러운 영어연극반. 교실 문을 열고 주리와 함께 들어오는 담당 여선생. 주리, 수줍게 자기 소개한다. "만나서 반가워. (웃음) 연극은 처음이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주리가 미국에서 살다왔다고 덧붙이는 여선생. 그녀의 입부를 반기는 연극반 아이들, 그 속에 휘파람 부는 민호도 보인다. 뒷자리에 앉아 태연한 듯 박수치는 단비. 남학생들이 마련해 주는 자리에 앉는 주리를 끝까지 주시한다.

어느 스튜디오 안, 카메라를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짓는 미희와 연방 터지는 플래시. 이를 보고 만족스럽게 웃고 있는 시장 상인회 회장. 노래자랑 인기상 효과를 톡톡히 보는 미희.

시장 홍보 전단을 히죽거리며 보고 있는 성군. 가게일 하던 춘자, 종이를 뺏어든다. 전단지 안, 활짝 웃고 있는 미희 보인다. 성군을 흘겨보는 춘자, 쭉 째진 눈에 낮은 코, 큰 입이 디즈니만화 포카혼타스의 주인공같다. "그렇게 좋냐? 첫사랑이라 그거지? (꽥) 떡 배달이나 가!" 후다닥, 떡 상자 들고 나가는 성군. 건너편 불란서제과. 손님들에게 사인 해주느라 정신없는 미희 보인다.

FLASH BACK. 대대로 빵집 여자들에 사족을 못 쓰는 떡집 3대. 활동사진 같은 흑백화면. 떡집 1대 노진군, 1대 왕씨네 큰 딸을 훔쳐보다 아내에게 들켜 떡메로 얻어맞는다. 컬러로 바뀐 화면. 살랑살랑 엉덩이 흔들며 걷는 2대 왕씨네 둘째 딸. 그 뒤를 몰래 쫓아가 빵짝을 들어주는 2대 노멍군, 두꺼비 닮은 아내에게 걸려 빵짝 채 밀려 넘어진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3대 노성군, 불란서제과를 나서는 미니스커트 차림의 미희를 넋을 잃고 쳐다본다. 어린 민호를 업은 춘자. 이제 막 뽑은 뜨거운 가래떡을 성군의 입에 쑤셔 넣는다.

쟁반에 담긴 햄버거세트 3개를 들고 자리로 돌아가는 4대 노민호. 시끌벅적한 맥도날드 창가 좌석. 단비와 영호 마주 앉아 영어로 대화중이다. 도강사건 이후, 영재 영호에게 영어 과외를 받는 단비. "감자칩이 덜 익었잖아. 가서 바꿔와." "(영호)노, 노. 포테이토 칩스." "그렇게 미국에 가고 싶냐?" 쟁반을 들고 일어서던 민호, 창밖에 놀란 얼굴을 하고 서있는 엄마 춘자와 눈 마주친다.

영호가 영어학원까지 빠져가며 단비에게 과외를 해주고 있었단 사실을 안 춘자. 시장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란서제과에 쳐들어가 단비모녀에게 삿대질을 하

며 욕을 한다. 이 싸움으로 단비의 유학 계획을 알게 된 미희.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옆 집 여자한테 그런 말까지 듣게 하고! 왜 엄마 속상하게 해!” “진짜 속상한 게 누군데 그래! 말하면, 말하면 엄마가 나 유학 보내 줄 수 있어?”

쥐꼬리만 한 가게 수입으로는 단비의 유학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희. 평소 그녀의 반반한 외모를 눈여겨보던 ‘가희 다방’ 최마담. 미희에게 노래방 도우미 일을 소개시켜준다. 생각보다 높은 시급에 혹한 미희는 가족에게는 비밀로 한 채 도우미 일을 하기로 결심한다.

현란한 조명. 시끄러운 음악. 술 취한 남자들 사이에 앉은 야시시한 차림의 아줌마들. 그 사이에 앉은 미희에게 자꾸 술을 권하는 중년남. 생각지도 못한 접대부 일에 당혹감을 느끼던 미희는 계속되는 신체 접촉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런 그녀의 손목을 잡아끄는 중년남. 두 사람의 말다툼은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옆방에서 노래하던 규식 부, 미희를 알아보고 상진에게 연락한다.

성군을 데리고 노래방에 달려 들어온 상진. 술 취한 남자들과 주먹다짐까지 불사하며 미희를 구해낸다.

꼬이기만 하는 주변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단비. 통금시간까지 넘기며 시내를 방황하다 뒤늦게 민호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향한다.

상진과 성군의 부축을 받아 가게로 돌아온 미희. 헝클어진 머리, 늘어지고 찢어진 옷, 눈가에 번진 화장. 울음을 터트리는 그녀를 춘자가 말없이 다독여준다. 그리고 민호와 함께 가게에 들어서는 단비, 노래방 사건의 전모를 듣게 된다. “엄마 바보야? 그렇게 쉽게 돈이 벌리면 누가 고생을 해!” 속상해하는 단비.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날 밤, 단비를 불러내는 민호. 그간 모아 온 파티시에 관련 자료들을 건넨다. “유학 안가고도 훌륭한 파티시에 된 사람 많더라.” “건방지게 누굴 가르치냐. 전교 297등 주제에.” “(잠시) 넌 똑똑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샐쭉거리며 자료를 받아드는 단비. 피식 웃는 민호.

만사형통(?)에 문제는 해결된 듯 보이지만, 단비는 더 이상 영천 줄리엣이 아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한 척을 해도 신성新星 주리를 이길 수 없다.

한편, 개교 60회를 맞은 영천고. 성대하게 치러질 가을 축제를 앞두고 영어연극반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어로 상연하기로 한다. 근처 학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토니 언더스탠드)까지 초빙하는 열의를 보이는 학교. 그리고 당연하단 듯, 여주인공 줄리엣 역할을 두고 단비와 주리가 물망에 오른다. 2주 후에 투표로 결정되는 주인공 자리. 대본을 받아들며 이거야 말로 찬스라고 생각하는 단비.

“천사의 탈을 벗겨주마, 유쭈리. 네가 이 소단비의 공격을 견딜 수 있을끄-아하하하하!” 옥상에 울려 퍼지는 사악한 웃음소리. 교실 책상에 앉아 부들부들 몸을 떠는 한여일.

그날 이후, 천사 주리를 향한 데빌 단비의 맹공이 시작된다. 주리 이름으로 동네 방네 낙서하기(말리는 여일), 행운의 편지 쓰기(질겁하는 여일), 실내화에 압정 넣기(경악하는 여일), 나무에 숨어 B·B탄총으로 겨냥하기(기절하는 여일), 집으로 방구폭탄 배달하기(기도하는 여일) 등등.

하지만 단비의 암행暗行이 파렴치하면 파렴치할수록 주리의 천사같은 본성은 더욱 빛을 발한다. 학생들은 그런 주리의 모습에 매료되고 그녀의 입지는 공고해진다. 장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주리. 수업이 끝나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 집에 찾아가 가사를 돕고, 동생들을 돌봐주기까지 한다. 처음엔 그런 주리를 위선자라며 멀리하던 몇몇도 결국,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된다. 하루 수십 통씩 쏟아지는 러브레터에도 그냥 웃기만 한 채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는 주리. 그녀는 난공불락의 벽으로 단비 앞에 우뚝 선다.

주말이면, 아빠의 마트에서 카운터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주리. 시장 안에서도 그녀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 텃세를 부리던 시장 사람들은 자상하고 신사적인 주리 아빠에게도 점점 호감을 갖게 된다. 아내와 사별하기 전, 모 광고회사 부장으로 일했던 주리 아빠. 그는 구청의 도움을 받아 시장 사람들을 출현시킨 저가의 CF를 만들고 시장 홍보에 힘쓴다. 시장의 소상점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주리 아빠의 전략에, 뜸했던 손님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마트는 물론 시장 전체 매상도 오른다. 영천시장 일대에서는 어느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인이 된 주리와 주리 아빠.

갖가지 비열한 계략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자 작전을 바꾸는 단비. 주리가 알든 만든 혼자 휴전을 선언하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온 줄리엣 선발 투표를 위해 주말까지 반납해가며 대본을 연습한다. 이 때문에 과외선생 영호와 로미오 대역 여일만 죽어난다. 단비는 이에 개의치 않고, 타고난 가장술을 이용, 금세 극중의 줄리엣으로 화해 영호와 여일의 찬사를 받아낸다. 매일 밤, 늦게까지 줄리엣을 분석 연구하는 단비.

야심한 시각, 옥탑방. 내일 있을 투표 결과를 점쳐보는 4총사. 규식이가 튀겨온 군만두를 먹으며 주리 이야기로 한창 열을 올린다. 단비 열성팬이던 규식까지도 줄리엣으로 주리를 미는 상황. 입 다물고 있던 민호는 단비와 주리 중 한 명을 선택하라는 친구들의 성화에 한숨 쉬며 방 밖으로 나간다.

난간에 있던 쌍안경을 집어 드는 민호. 무심히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잠옷 바람으로 시장을 몽유하고 있는 단비를 발견한다. 자신을 부르는 친구들을 뒤로 한 채 옥상 아래로 달려 내려가는 민호.

요 며칠, 주리와 경쟁하랴 대본 연습하랴 스트레스가 심했던 단비. 여느 때처럼 몽유병이 도져, 시장을 배회한다. 강시마냥 두 손을 쳐들고 뒤뚱거리며 걷는 단비. 저 앞의 어둠 속에서 수상한 걸음걸이로 주변을 살피며 가는 남자가 보인다. 후드티를 뒤집어 쓴 병기다. 한 손에 휘발유를 담은 통을 들고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병기. 몽유 상태로 그의 뒤를 쫓는 단비. 단비를 찾아 시장을 뛰어다니는 민호. 그 때,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주리. 잊은 물건이 있어 혼자 마트로 돌아온다.

평소 변변한 일자리 없이 이곳저곳 전전하던 병기. 단지 주목받고 싶다는 이유로 시장 일대에 불을 질러 온 욕구불만형 방화범이다. 이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한 주리마트에 불을 질러 TV와 신문지상을 자신이 일으킨 사건으로 도배하고 싶은 방화범 병기. 보름달이 뜬 이날 밤, 마트에 불을 지르기로 한다.

마트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는 병기. 불을 놓기 일보 직전, 시장을 헤매던 잠옷차림의 단비와 맞닥뜨린다. 곧 이어 단비를 쫓아 현장에 도착한 민호. 금세 상황을 파악하고 단비를 보호하려하고 당황한 병기는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두른다. 그 사이, 치솟아 오르는 불길.

급하게 마트로 달려온 주리. 병기와 대치중인 민호와 단비를 본다. 정신 못 차리는 단비를 감싸던 민호는 병기가 휘두르는 칼에 상처를 입고 이를 본 주리가 병기에게 달려든다. 깜짝 놀라는 병기와 민호. 대빗자루를 집어 든 주리. 악, 소리도 나기 전에 그녀의 강렬한 손목치기 한 방이 병기의 손목을 강타한다. 휘황한 달빛 아래 연달아 이어지는 주리의 고단수 매질. 이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병기. 숨을 헐떡이는 주리 뒤로 영천 4총사가 민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온다. 입고 있던 난방을 벗어 입구에 붙은 불을 끄는 민호와 아이들. 단비를 부축하고 선 주리. 곧 이어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 들려온다.

다음 날 영천 고등학교는 지난밤에 일어난 방화사건과 오전에 치러진 줄리엣 선발 투표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어젯밤의 활약에 힘입어 단비를 큰 표차로 이기고 줄리엣으로 선발된 주리. 그리고 이름이 비슷하단 이유로 얼렁뚱땅 로미오로 뽑힌 노민호. 줄리엣에 뽑히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어젯밤의 사건으로 주리에게 몽유병을 들킬까봐 단비는 전전긍긍한다. 여기에 그녀의 염장을 지르는 여일의 한 마디. “주리 걔가… 이름도… 줄리엣 같잖아….”

점심시간. 단비를 찾아 온 민호. “주리가 우리 구해줬어. 아무리 싫어도 고맙다고 한 마디 해.” 단비는 여일을 시켜 주리를 옥상으로 불러낸다. 다정하게 미소 짓는 주리에게 차갑게 한 마디 하는 단비. “너 그 사실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 죽는다.” “(싱긋) 나 아무 것도 못 봤는데.”

깐깐한 원어민 강사 토니 언더스탠드의 진두지휘로 점점 모양새를 갖춰가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주인공 역을 맡은 민호와 주리는 방과 후 매일같이 연극 연습을 하며 점점 가까워진다. 게다가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주리는 민호가 동네 경로당에서 꾸준히 목욕봉사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은 함께 근처 양로원과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

평소 수줍음 많은 성격 때문에 단비 외에는 친구가 없던 여일 역시, 특유의 친절함으로 다가오는 주리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민호에 이어 여일마저 주리에게 빼앗

겼다고 생각하는 단비. 줄리엣은커녕, 여일과 함께 하녀 1, 2역을 맡아 속이 뒤집히던 단비는 도강사건을 기억하는 토니에게 미운 털까지 박혀 여기저기서 찬밥 신세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소외감에 단비는 자신에게 소중했던 사람들의 존재를 하나 둘 깨닫게 되지만 이러한 깨달음도 잠시, 단비의 심술보가 또 한 번 작동한다.

가을의 초입, 때늦은 태풍이 북상해 온다. 이제는 대놓고 쉬는 시간까지 대본 연습을 하는 민호와 주리가 꼴 보기 싫은 단비. 두 사람을 골탕 먹일 기발한 작전을 생각해낸다. 여일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진행된 작전은 이렇다. 민호에게는 주리가, 주리에게는 민호가 고백할 것이 있다며 거짓말을 해, 각각 엉뚱한 장소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둘이 연락할 경우를 대비해, 두 사람의 핸드폰까지 방전시켜 놓는 것. 간사한 꾀로 약속을 받아내는 단비. 옥상 위, 오랜만에 울려 퍼지는 단비의 사악한 웃음소리.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보고 있던 여일. 뭔지 모를 두려움에 부들부들 몸을 떤다.

방과 후. 단비의 꾐에 넘어간 민호와 주리는 각각 서로 다른 약속장소로 향한다. 그 시각, 거센 비바람을 뚫고 마규식네 중화요리집에 도착한 단비. 테이블에 앉자, 단비 팬인 규식은 당연하단 듯 자장면 한 그릇을 내준다. 저녁에 민호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던 규식. 민호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때, 자장면 한 그릇을 뚝딱 비운 단비, 간사하게 웃는다. “고것들 고생 좀 할 거다. 가을비가 감기에는 직방이라지, 아마-아하하하하.” 단비의 정체를 어렴풋이 눈치 채고 있던 규식. 자장면 값을 받겠다고 단비를 협박해 주리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를 알아낸다.

우산을 쓴 주리, 한숨을 쉬며 배터리가 다 된 핸드폰을 내려다본다. 그녀의 머리 위,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는 백석기원 간판.

구두쇠로 유명한 기원의 주인 최연노 어르신. 시장 사람들이 몇 번 항의했지만, 그는 오래되고 낡은 간판을 교체하지 않았다. 작은 바람에도 덜렁거리는 기원 간판, 그 아래를 지나갈 때면 언제나 불안해하던 시장 사람들.

우산을 쓴 탓에 시야가 가린 주리. 점점 강해지는 바람에 흔들리는 정도가 심해지는 간판. 곧, 떨어질 듯하다. 그리고 주리를 부르며 달려오는 규식. 나사가 풀림과 동시에 주리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기원 간판, 몸을 날리는 규식. 안 좋은 예감에 백석기원으로 달려온 규식은 간발의 차로 주리를 위험에서 구한다.

세란병원 응급실.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규식이 팔에 기브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있다. 규식의 부모와 주리 아빠, 민호의 모습도 보인다.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침대 머리맡에 서있는 주리. 화난 민호, 응급실 밖으로 나가면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단비가 있다.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들을 속이고 규식까지 다치게 한 단비에게 민호는 처음으로 싸늘한 모습을 보인다. 병문안하겠다는 단비를 돌려보내는 민호. 등 돌려 응급실로 들어가는 민호를 보며 단비는 처량하게 발길을 돌린다.

사고 이후, 민호는 단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민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바닥에 가방도 집어 던져보고 영호를 불러 속 뒤집어 놓는 소리도 전해보는 단비. 마지막 수단으로 몽유병이 도진 척도 해보지만, 민호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견디지 못한 단비는 급기야 연극 연습을 그만둔다.

연극 연습을 무단으로 결석한지 삼 일째 되는 날. 가게 문을 닫는 단비 앞에 주리가 나타난다. 연습에 나와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주리. "놀라긴 했지만 그날 일, 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거 알아. (잠시) 연극이 꼭 상연됐으면 좋겠어. 너도 그렇지? (웃음) 모두들 널 기다리고 있어. 나도 그렇고, 민호도 그렇고." 마지막 자존심에 미안하단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던 단비. 주리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개교 60년 기념 영천 대동제 마지막 날.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기 위해 강당에 모여드는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동네 사람들. 무대 뒤엔 긴장한 모습으로 대기 중인 영어연극반 아이들 보인다.

암전되는 강당. 드디어 막이 오르고 연극이 시작된다. 완벽한 외모와 발음으로 관객들의 이목을 한 몸에 받는 줄리엣 주리, 어설픈 분장과 연기력 때문에 상연시간 내내 웃음을 자아내는 로미오 노민호, 기브스 투혼을 불사하며 머큐쇼를 연기해내는 마규식, 분위기가 싸할 때마다 무대에 등장, 코믹 댄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폭소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하녀1(한여일)과 하녀2(소단비).

그리고 연극의 하이라이트. 죽은 듯 누워있는 로미오를 눈앞에 두고 단검을 뽑아드는 줄리엣. 그런데 이게 웬일, 단검의 날이 사라지고 없다. 당황한 줄리엣이 로미오를 마구 흔들어 깨우면 죽은 줄 알았던 로미오, 하품하며 일어난다. 킬킬킬 웃음소리 들리면 무대 구석, 주방에 선 하녀1과 하녀2에 스포트라이트 비쳐진다.

주인 몰래 구운 고기를 단검으로 썰어먹으며 좋아하는 하녀1과 하녀2. 하나라도 입을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로미오에게 먹였다고 고백하는 하녀2. 그녀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객석에 울려 퍼지고 이와 동시에 무대 위로 등장하는 연극의 출연자들. 하녀2의 음모(?)로 사랑을 이루게 된 로미오와 줄리엣. 그 둘을 둘러싼 사람들 모두 흥겨운 댄스파티를 벌이는 것으로 연극은 마무리 된다. 해피엔딩으로 각색된 연극에 열광하는 관중들. 사람들의 박수소리가 강당을 울리고 머리 위에서 흩뿌려지는 색색의 종이들. 무대 위, 커튼콜하며 눈 마주치는 단비, 민호, 주리 그리고 여일. 환하게 미소 짓는 네 사람.

에필로그. 시장 구석구석을 비추는 카메라. 새 간판을 달고 있는 백석 기원. 규식이네 옥탑방에 모여 야한 잡지를 보는 영천 4총사. 쌍안경으로 건너편 건물을 엿보고 있던 정철 비명을 지르면, 아귀처럼 달려드는 친구들. 손님들로 북적이는 주리마트. 카운터에 있던 주리에게 하트 초콜릿을 내미는 규식. 수줍은 듯 받아드는 주리. 시장 구석에 있는 무도학원. 탱고를 추던 여일. 음악에 도취되어 코믹댄스를 추기 시작한다. 당황하는 파트너. 영천 떡 상회. 곱게 화장한 춘자, 갓 쪄낸 떡을 토니 언

더스탠드에게 대접한다. 영호와 영어로 대화하던 토니, 황홀한 듯 고전적인 춘자의 얼굴을 응시한다. 속상한 듯 떡메를 내려치는 성군. 건너편 불란서제과. 가게의 부흥을 위해 초빙한 제빵사에게 불손한 태도로 기술을 전수받는 미희와 상진. 늦은 시각 제과제빵 학원. 열심히 파티시에 공부에 열중하는 단비. 복도에 서서 단비를 기다리는 민호. 수업이 끝나자 우르르 몰려나오는 사람들. 다른 교실로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단비. “야, 어디가? 집에 가야지!” “이 미련아, 아직 수업이 남았잖아.” “너 그건 수강등록 안 했잖아?” 단비의 얼굴에 번지는 사악한 미소. 민호의 귀를 잡아당기며 단비, 카메라를 향해 찡긋 윙크한다.

끝